

# 시 심사평\*

박두규

심사기준의 큰 틀은 작품의 완성도와 5월 정신의 현재화였다. 전자는 언어의 자기 내면화 역량에 비중을 두었으며 후자는 자기 삶의 사회적 진정성에 비중을 두었다. 이 외에도 작품의 참신성이나 격조 등 종합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찾아보았다. 전체적으로 작품들이 일정 수준에 올라 있었으며 심사가 쉽지는 않았다. 하지만 앞서 말한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최종심에 오른 것은 다섯 명의 작품이었다.

‘유산’ 외 5편, ‘손톱의 힘’ 외 4편, ‘자벌레에게’ 외 6편, ‘뜨거운 자세’ 외 5편, ‘아름다운 테러리스트’ 외 7편을 쓴 다섯 명의 시인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었으며 모두 좋은 작품들이었다. 특히 ‘유산’과 ‘자벌레에게’는 당선작의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‘아름다운 테러리스트’에 밀리고 말았다.

‘유산’은 사유가 깊고 그 사유를 자기 언어로 형상화하는 탁월한 시적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. ‘자벌레에게’는 시의 본질적 특성이면서도 요즘 시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운율을 잘 내장하고 있으면서 삶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감동을 거느린 수작이었다. 하지만 다른 시편들이 고르게 그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쉬웠다.

당선작 ‘아름다운 테러리스트’의 가장 큰 매력은 ‘긴장감’에 있었다. 요즘 젊은 시인들이 언어에 끌려 다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시인은 시의 언어와 언어의 관계망을 조직하는 역량이 있었고 그 속에서 긴장감을 연출하는 능력이 있었으며 분명한 자기 사유가 시의 바닥에 깔려 있었다. 각기 장점이 있는 다섯 편의 시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였다.